

추석 가정 예배

예배의 부름 시편 136:26 인도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1장 다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 말은이

사랑의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과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민수기 6:22-27 말은이

-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 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 25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 26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인도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시다.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 천재지변으로 인한 각종 사고, 질병 등 날마다 혼란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

이스라엘을 광야 길에서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으로 오늘까지 우리 가정이 살아올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한 일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주셨고, 화목하게 살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감사히 받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 우리 가정의 평강, 또 이웃과의 평강을 잘 지켜내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평강을 이루고 지켜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와 평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올 한해 하나님 안에서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 송 28 장 다 같 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도

추석 가정 예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산제일교회**
담임목사 권오규